

시·도지사 회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은 지속적 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대개 확인해 봤더니 옛날에는 시도지사 회의가 자주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난 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1년에 1~2회 열린 것 같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이번이 2회째 회의입니다. 가능하면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생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하다보니 연구, 협의, 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자치를 직접 하는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문제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를 대개 매듭 짓고 연내에 입법 작업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은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말 내년 초까지 큰 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에서 앞으로 21세기 효율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자율, 분권, 수평적 협력 등의 개념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노력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점은 우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금년 안에 법이 통

과 되지 않으면 추진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거나 관료조직에 의해 저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박또박 지켜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 하나로 하루종일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접근입니다.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지방으로 내려보낼 사무를 찾아서 보내는 방법을 썼으나 앞으로는 남길 사무를 먼저 가린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내려 보내겠습니다. 과도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행정개혁부로 남을 것입니다. 혁신은 지속적 과제입니다. 이제 지속적 혁신의 시대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혁신 자체를 주업무로 하는 부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행자부는 재해·재난·위기관리 등 기존의 기능위에 ‘혁신’이라는 과제를 하나갈 것입니다. 1단계가 ‘분권작업’의 주도입니다.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과 집행을 함께 해나가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21세기 효율의 핵심은 자율, 분권, 수평적 협력

토론을 들으며 놀랍게 생각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 드릴 한 가지는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의결기구화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의결기구가 대통령보다 훨씬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주십시오.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의결기구에 맡기는 편이 좋을지 잘 결정해주십시오. 국세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전해야 할 구체적 세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지방분권특별법의 추상성과 관련, 심의하면서 구체화 해나가기로 합니다. 구체화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분권을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지방에 넘길 것은 넘기고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무산 사례에 대해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밀고 나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합니다. 경찰 문제는 기술적으로 정교한 문제입니다. 초단위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경찰과 중앙경찰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경찰청사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되게 하는 지혜를 한 번 모아봅시다. 의심을 모두 덮어버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첫차부터 출발시킵시다